



# 하루에 하나

2026.6.30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원/달러 환율

1,542.90원 (+10.90원)

### KOSPI

8,394.65 (-16.56, -0.20%)

### KOSDAQ

920.57(+69.20, +8.13%)

### 국고채 10년 금리

4.144(+0.02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 Special Report

Hana 미국주식 Monthly 양호한 7월 미국증시 예상: 세 가지 이야기 [강재구, 김재임, 김시현]

###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변동성 대응 국면 [박승진]

New K-ETF 코스닥150 커버드콜 액티브 [박승진]

DIN (Doo It Now) 코스닥의 다음 30년, AI 병목에서 열린다 [김두연]

ETF Catch-up Anthropic과 OpenAI를 편입 중인 ETF [장치영]

### 기업분석

아모레퍼시픽 국내 최대 멀티브랜드 화장품 기업의 저력을 드러내는 중 [박중대]

에이피알 유럽 사업 영토 확장 중 [박중대]

LX인터내셔널 2분기부터 세 자리 수 이익 성장 시작 [유재선]

시프트업 니케의 반등 확인, 하반기 스피릿 공개 기대 [이준호]

크라프트온 매력적인 가격대, 매수 기회 [이준호]

### Weekly

건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올려주는 건설주 [김승준]

### 글로벌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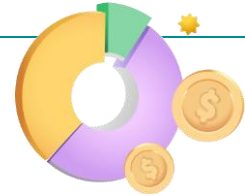
일본제철 무난한 영업실적 지속, US스틸 정상화가 관건 [박성봉]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한화오션, 삼양식품, 대덕전자, 세방전지, 리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 코스메카코리아

#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6.29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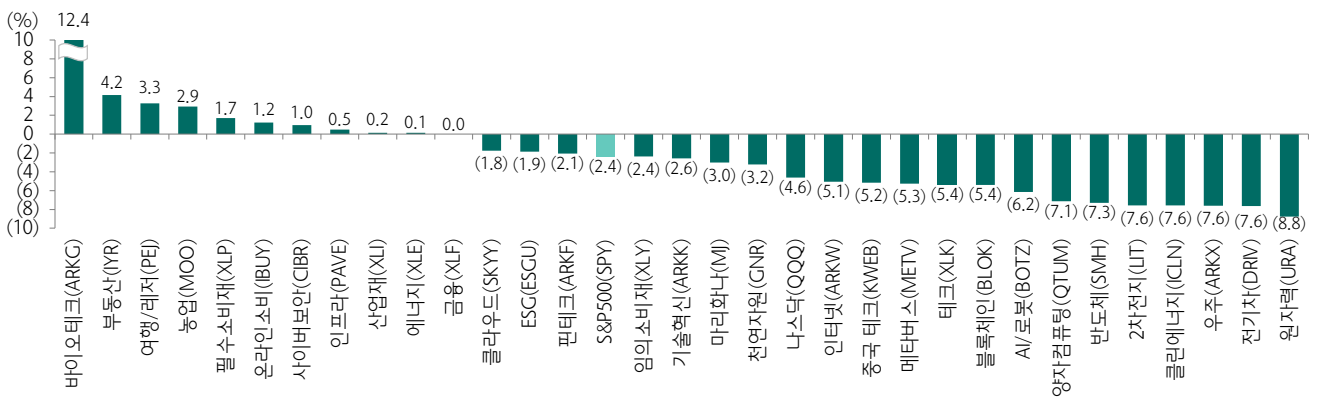
##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변동성 대응 국면

하반기 진입 + 휴장일 영향에 의한 단기 변동성 확대 염두. 실적 모멘텀 차별화 포지션 유지: SMH/DRAM, PAVE/AIRR, KBWB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지역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초가 지속되었다.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150.6억달러의 매수세 유입이 진행되었고,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자금 유출 영향으로 -78.4억달러가 순유출되었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규모가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재개되면서 총 +143.9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분기 및 반기 말의 일회성 수급 이동과 포지션 조정의 방향 전환이 진행되면서 대표 주식형 ETF들과 유사 섹터형 ETF 종목군 내에서의 자금 유출입 흐름이 확인되었다. S&P500지수를 추종하는 IVV/SPY에 총 +609.8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동시에 VOO에서는 -353.0억달러의 순유출이 나타났고, 나스닥100지수 ETF인 QQQ와 메모리반도체 ETF인 DRAM으로 각각 +62.8억달러, +35.4억달러가 유입된 한편 IT섹터 ETF인 XLK와 글로벌 반도체 ETF인 SMH에서는 -89.9억달러와 -82.0억달러의 자금 유출이 진행되었다.
- 글로벌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는 가운데 SGOV(초단기국채)와 AGG/BND(US Total), BNDX(미국채외 해외채권)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된 반면, IEF(중기국채)과 TLT(장기국채) 등에서는 자금 유출 흐름이 나타났다. 원자재 ETF 종목군에서는 달러 강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금 현물 ETF인 GLD와 IAU, 대표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FBTC, 이더리움 현물 ETF인 ETHA에서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동반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통화정책 고민과 함께 AI에 의한 인플레이션 경계와 수요 불안의 해석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가격 인상 이슈가 시장 조정의 트리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2분기 기업 실적발표 시즌 진입을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예민해진 주가 반응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동성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3분기 중 Hyperscalers들의 Capex 관련 지출이 유입되는 현금 흐름을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증시의 변동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
- 더불어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들어서는 주간인 만큼, 자금 흐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종전 및 휴전 기대에 의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준 정책의 해석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수적 반응이 우선시되고 있다. 오는 금요일에는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관계로 미국증시가 휴장일인 한편, 채권 시장은 목요일부터 조기 마감(오후 2시) 예정이다. 거래일이 짧아지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아질 여지가 존재한다. 시간의 이슈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두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 경제지표의 경우 오는 수요일(7/1)에 6월 ISM제조업 보고서가, 목요일(7/2)에는 6월 고용보고서가 확인된다. 서베이 지표인 ISM 제조업 보고서는 지난 달 반등 이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 항목들인 신규 주문과 구매가격 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쇼어링과 AI Capex 투자 기반의 신규 수요와 구매가격 하향 안정의 흐름은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용보고서의 경우, 4.3%의 실업률 유지 가운데 비농업고용자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완만한 고용 둔화 가운데 임금상승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세를 통해 펀더멘털 퀄리티(두 지표 모두 하락시 퀄리티 약화 해석 가능)에 대한 판단으로 연결지어 볼 수 있겠다.

- 주초에 ECB의 주최로 진행되는 연례 행사인 신트라 포럼의 경우, 과거 주요 인사들의 정책 관련 발언이 확인되었던 사례들이 존재한다.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 역시 토근화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일에는 라가르드 ECB 총재, 베일리 BOE 총재와 더불어 케빈 워시 연준 총재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패널 토론토도 진행된다. 지난 6월 FOMC에서는 매파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전쟁 및 AI에 대한 세부 평가를 확인하며 나타날 향후 시장의 정책 인식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ETF 포트폴리오는 Hyperscalers 기업들의 Capex 투자 확대와 AI 산업 성장의 단순한 스토리 하에서 병목현상과 실적 기반의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SMH/SOXX/DRAM(반도체), ZAP/POWR(전력), URA/NLR(원전)의 중장기 포지션을 중심으로 유지해야 하겠으나, 수급 기반의 등락 반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CHAT/BAI(AI 액티브) 역시 실적 모멘텀 기반의 투자 고려 대상 종목군이 되겠다. 수급 이동 과정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포지션 확장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투자 중심의 경제 사이클과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 투자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AIRR(중소형제조업), XLI(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한편, 연준 정책 인식 변화 및 순환매 가능성과 대형 IB 딜의 증가 흐름을 고려한 KBWB(대형은행)의 편입도 생각해 볼만한 시점이다. 국면의 특성상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6.22~6.26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6월 29일 | Global Asset Research

## Global ETF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New K-ETF

## 코스닥150 커버드콜 액티브

## 신규 상장 ETF(6/30)

## - KIWOOM 코스닥150 커버드콜 액티브

**KIWOOM 코스닥150 커버드콜 액티브:** 국내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코스닥1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액티브 커버드콜 ETF이다.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주식 포지션을 구축하고, 코스닥150 콜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이 함께 반영되는 액티브 운용방식의 ETF 종목이 되겠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교지수인 '코스닥150 위클리 고정 30% 커버드콜 지수'는 코스닥150 구성 종목을 편입한 주식 포트폴리오에 코스닥150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콜옵션은 코스닥150 옵션시장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만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옵션을 대상으로 하며, 행사가격이 당일 코스닥150 주가지수 이상인 종목 가운데 행사가격이 낮은 순으로 2개 종목(주가지수와 가까운)을 매도 대상으로 선정한다. 매주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리밸런싱 작업은 전체 주식 현물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명목금액의 30% 규모(70%는 주가 추종)만큼 구축된다.

액티브 ETF인 만큼 커버드콜 포지션은 상황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한다. 강세장에서는 커버드콜 전략 비중을 축소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옵션 매도 비중을 확대하여 높아진 프리미엄 기반의 분배금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운용 전략 등이 고려된다.

국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 차익은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주가 상승에서 발생하는 자본 차익과 마찬가지로 옵션 매도 포지션의 프리미엄 수익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적인 월 배당을 추구하는 ETF이다. 0.63%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커버드콜 ETF 종목이 되겠다.

도표 1. KIWOOM 코스닥150 커버드콜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IWOOM 코스닥150커버드콜액티브
상장일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비교지수	코스닥 150 위클리 고정 30% 커버드콜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63%
구성종목 수	- 주식 : 150종목 - 옵션 : 2종목
비중결정방식	- 주식 : 코스닥 150지수 구성 비중 반영(유동주식비율) - 옵션 : 현물 보유규모의 30% 명목금액만큼 콜옵션 매도계약수 설정
정기변경	- 주식 : 매년 2회 (매 코스피200 선물시장 최종거래일의 다음날) - 옵션 : 매주 2회 (매 결제주 또는 결제일거래 옵션 최종거래일)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30일 | Global Asset Research

## Equity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DIN (Doo It Now)

## 코스닥의 다음 30년, AI 병목에서 열린다

(결론적으로) 코스닥의 다음 30년은 양적 평창이 아니라 질적 재평가의 시간이다. 최근 조정은 구조적 훼손이 아니라 대형 반도체 쏠림, 레버리지 수급, 할인을 재가격화가 만든 압축 조정이다. 낙수효과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AI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으로 경로가 바뀌고 있다. 조정은 불편하지만, 강세장의 끝이 아니라 다음 주도주를 다시 선별할 기회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여주사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스닥에서 AI 병목 해결 기업들을 주목한다.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조정의 시작인가. 둘째, 낙수효과는 사라졌는가. 답은 모두 아니다. 지금의 조정은 추세 훼손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다. 낙수효과도 소멸이 아니라 재배치다. 과거에는 반도체 온기가 소재/장비/부품 전반으로 넓게 번졌다. 이제는 AI 인프라의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으로 좁고 깊게 흐른다.

코스닥은 7월 1일 출범 30 주년을 맞는다. 지난 30년은 외형 성장의 시간이었다. 상장기업 수는 늘었고, 시가총액도 커졌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외형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급등과 급락, 테마와 실적의 괴리,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혼재가 코스닥 할인율을 높였다. 코스닥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코스닥 소외는 이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형 반도체 랠리를 이어갔지만, 코스닥은 상승장에서 덜 오르고 조정장에서는 더 흔들렸다.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와 ETF 로 이동했고, 코스닥의 상대 매력은 낮아졌다. 그러나 이는 코스닥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다음 재평가의 조건이 더 명확해졌다는 의미다.

정책의 방향도 그 지점에 맞춰져 있다. 핵심은 승강형 세그먼트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다. 코스닥을 프리미엄, 스탠더드, 관리군 등으로 나누고, 성장성과 신뢰를 갖춘 기업은 위로 올리며,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아래로 내리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할인율을 낮추는 정책이다. 시장의 질이 높아져야 자본이 돌아온다.

정책 유동성도 단순한 기대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자펀드 자금 일부는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들어간다. 기관투자자용 국민성장펀드에는 코스닥리그도 도입됐다. 이는 코스닥을 단기적으로 밀어 올리는



국내외 주식시장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주식시장 RA 최욱 wookchoi@hanafn.com

자금이러기보다, 성장 단계 기업의 자본 조달을 뒷받침하는 자금이다.

따라서 코스닥 30주년 행사(KOSDAQ CONNECT 2026)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다. 코스닥의 다음 산업을 확인하는 자리다. 제약/바이오, 로보틱스, K-뷰티, AI, 반도체, 2차전지 등은 모두 코스닥의 미래를 구성하는 축이다. 다만 앞으로의 시장은 테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 자금, 실적 개선, AI 산업 병목이 만나는 기업이 먼저 재평가될 것이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은 펀더멘털보다 수급에서 출발했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상승, 레버리지 ETF 확대, 개인 신용융자 증가가 맞물리며 시장의 속도는 빨라졌다. 상승이 빨랐던 만큼 조정도 빨랐다. 그러나 가격 조정이 곧 업황 둔화는 아니다. 주가는 먼저 쉬고 있지만, 실적의 방향은 아직 개선 쪽에 있다.

마이크론의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실적과 가이던스는 강했다. AI 서버, HBM, 고부가 메모리 수요도 견조했다. LTA(장기공급계약)보다 강한 SCA(전략적고객협약)도 16 건이나 체결했다. 그럼에도 주가는 호실적 이후 흔들렸다.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의 높이었다. 시장은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가”보다 “그 좋은 실적이 이미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묻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조정은 AI 인프라의 부정이 아니라 AI 인프라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다.

7 월의 핵심 변수는 다시 실적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는 유효하다. 메모리 가격 상승, HBM 공급 부족, 서버 DRAM 수요, NAND 회복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반도체 투톱은 단순한 경기민감주가 아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실적의 방향이 살아 있는 주도주는 남는다.

코스닥의 다음 주도주는 “작은 기업”이 아니라 “필요한 기업”이다. AI 시대의 병목은 GPU 만이 아니다. 전력, 냉각, 패키징, 테스트, 소재, 장비,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모두 병목이다. AI 투자가 커질수록 가장 먼저 부족해지고, 가장 비싸지고,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영역이 병목이다. 코스닥의 기회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최근 코스닥 조정 폭은 과거 위기 국면과 비교될 만큼 컸다. 그러나 이번 조정의 성격은 다르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수급 쏠림의 해소다. 그래서 공포의 끝은 매도 신호가 아니라 선별적 재진입 신호일 수 있다. 조정은 불편하지만, 시장의 질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필요한 통과이레다.

전략은 명확하다. 코스닥은 무차별 반등 기대가 아니라 AI 병목 중심으로 압축한다. 정책 수혜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실적 개선의 관점에서 본다. 반도체 투톱은 여전히 한국 시장의 중심축이다. 조정 이후에도 실적과 구조적 수요가 살아 있는 주도주는 다시 시장을 이끈다.

코스닥의 다음 30년은 더 많은 종목의 시대가 아니다. 더 좋은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다. 과거의 코스닥이 성장의 가능성을 샀다면, 앞으로의 코스닥은 AI 인프라의 필요성을 산다. 조정은 불편하지만, 재평가의 문은 조정 이후 열린다. 코스닥의 다음 30년은 AI 병목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한다.

2026년 6월 29일 | Global Asset Research

## Global ETF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ETF Catch-up

## Anthropic과 OpenAI를 편입 중인 ETF

### AI IPO 내러티브는 여전히 유효

지난주 뉴욕타임스는 OpenAI가 IPO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AI 관련 주식들의 높은 변동성과 SpaceX 상장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이 IPO 흥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영향이다. 주판사단은 1) 기업가치를 낮추고 올해 안에 상장하거나 2) 상장 시점을 늦추고 기업가치 1조 달러를 목표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샘 알트먼은 기업 가치 목표치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OpenAI의 상장 시기 지연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던 부분이다. 지난 10일 샘 알트먼이 “향후 1년 내” 상장을 완료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예측 시장 내 OpenAI의 연내 상장 확률은 70%에서 40%까지 낮아진 바 있다. 상장 시기 조율은 연이은 대형 IPO로 인한 자금 조달 여건과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확인 과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며, AI IPO 내러티브를 훼손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비상장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 비상장 지분 편입 ETF와 폐쇄형 펀드

IPO 내용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는 비상장 지분을 보유하는 상장사에 투자하는 방법 외에도 1) 비상장 지분을 직접 편입한 ETF와 2) 폐쇄형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상품별로 비상장 주식의 편입 및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기업가치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과 영향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비상장 지분 편입 ETF는 비상장 주식을 손쉽게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이다. SEC 규정에 따라 ETF 내 비상장 주식의 총 편입 비중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Anthropic과 OpenAI를 편입하고 있는 ETF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나 향후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ETF 내 편입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 지분 편입 ETF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2가지 있다. 1) 자금 유입 확대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이다. 비상장 주식은 유동성이 제한적이어서 자금 유입 속도에 맞추어 비중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NASA는 자금 유입 속도가 빨라졌던 5월, SpaceX 비중이 10.7%에서 4.6%까지 하락한 바 있다.

2) NAV(ETF 기준가)에 비상장 주식의 가치 반영이 더디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TF는 비상장 주식을 편입할 때 SPV(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간접 보유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없어 SPV 또는 운용사의 자체 평가에 따라 가치가 산정된다. 이로 인해 비상장 기업이 재평가 되더라도 NAV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Analyst 강치영 chiyoung.jang@hanafn.com

SpaceX를 약 10% 편입하고 있었던 XOV의 경우, SpaceX 기업가치가 4배 이상 상승한 구간에서도 NAV는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지 않은 기초 지수(ER30TR)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고 기초 지수 대비 초과 성과도 제한적이었다.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폐쇄형 펀드도 비상장 주식을 미리 보유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이다. 폐쇄형 펀드는 비상장 주식의 편입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비상장 기업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 현재 DXYZ와 VCX의 Anthropic과 OpenAI 합산 비중은 각각 23.9%, 28.9%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수준이다. 또한 유통 물량이 고정되어 있어 자금 유입에 따른 비중 희석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시장 가격 왜곡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 NAV 대비 거래 가격의 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체 가능한 투자 수단이 늘어날 경우 수요 감소로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진입 시점의 NAV 대비 시장 가격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Anthropic과 OpenAI를 편입 중인 ETF List

현재 Anthropic 및 OpenAI를 편입하고 있는 ETF는 BAI, ARKK, ARKW, AGIX, ARKF, CNEQ, ALAI, TTEQ, ATFV 등이 있다. IPO 이전에 ETF를 통해 Anthropic과 OpenAI 비중을 가져가고 싶다면, Anthropic 편입 비중이 높은 CNEQ, ALAI와 Anthropic과 OpenAI를 동시에 담고 있는 TTEQ를 관심 종목에 둘 수 있다.

CNEQ(Alger Concentrated Equity ETF)는 미국 대형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구성 종목 수를 30개 이하로 유지하며 상위 5개 종목의 합산 비중이 약 40%로 NVIDIA(13.3%), Microsoft(6.1%), TSMC(5.8%), Alphabet(5.7%), Anthropic(5.5%) AI 및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LAI(Alger AI Enablers & Adopters ETF)는 Anthropic을 3.02% 편입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에 폭넓게 투자한다. 약 70여 개의 종목을 편입하여 CNEQ 대비 분산도가 높다.

TTEQ는 Anthropic(0.90%)과 OpenAI(0.47%)를 동시에 편입하고 있는 ETF다. TTEQ는 기술 혁신과 발전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한다. 비상장 종목 비중은 제한적이지만 상위 10개 종목 중 9개가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

2026년 06월 2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 BUY (유지)

목표주가(12M) 150,000원  
현재주가(6.26) 97,000원

### Key Data

KOSPI 지수 (pt)	8,411.21
52주 최고/최저(원)	165,100/96,200
시가총액(십억원)	5,673.8
시가총액비중(%)	0.08
발행주식수(천주)	58,492.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77.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4.3
외국인지분율(%)	24.16
주요주주 지분율(%)	
아모레퍼시픽그룹 외 18 인	50.14
국민연금공단	8.42

###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598.0	4,954.1
영업이익(십억원)	460.0	526.2
순이익(십억원)	364.7	415.0
EPS(원)	5,089	5,793
BPS(원)	82,763	86,751

### Stock Price



###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885.1	4,252.8	4,589.6	5,040.2
영업이익	220.5	335.8	484.3	570.4
세전이익	620.8	343.8	498.7	588.2
순이익	593.2	235.7	351.7	414.8
EPS	8,591	3,413	5,093	6,008
증감율	229.41	(60.27)	49.22	17.97
PER	12.20	35.01	19.05	16.15
PBR	1.38	1.51	1.17	1.11
EV/EBITDA	12.99	11.19	8.29	7.04
ROE	11.69	4.40	6.30	7.06
BPS	76,206	79,025	82,880	87,544
DPS	1,125	1,240	1,364	1,50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 아모레퍼시픽 (090430)

## 국내 최대 멀티브랜드 화장품 기업의 저력을 드러내는 중

### 2분기 영업이익 1,073억원(YoY 46%) 추정

2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0% 성장한 1조 1,091억원, 영업이익은 46% 증가한 1,073억원으로 추정한다. 국내와 해외 사업이 모두 YoY 10% 내외 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백화점 채널 매출이 매장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YoY (+)로 전환하고, 이커머스 성장률이 제고되었다(YoY 10% 이상). 크로스보더 매출이 아마존 사업 미국 법인 이관에도 불구하고 YoY 10% 이상 성장한 게 고무적이다. 해외 사업은 중국 매출 부진(설화수 점포수 축소, YoY -20%)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EMEA 지역 매출이 각각 YoY 20%, 40% 이상(코스알엑스 포함) 성장하면서 글로벌 확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코스알엑스 매출은 YoY 30%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는데, 영업이익률 25% 고마진 브랜드의 성장을 제고는 전체 성장성은 물론 수익성 제고에 고무적이다.

### 해외 진출, 브랜드와 채널 다각화 고무적

아모레퍼시픽은 6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총 5개 제품을 뷰티 톱 100에 올렸다(라네즈 3개, 코스알엑스 1개, 일리운 1개). 전년도 1개(코스알엑스)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좋은 성적이다. 미국에서 설화수는 세포라 매장 확대 영향 YoY 20%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니스프리 리뉴얼 론칭 모멘텀도 좋다. 에스트라는 세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프라임데이 행사에서는 라로슈포제와 비슷한 순위를 기록했다. 일리운과 미장센도 안착하고 있다. 북미는 세포라 중심에서 아마존으로 채널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브랜드 인지도 및 마케팅 역량 제고로 '세포라 퍼스트' 기조가 바뀌고 있다. 얼타뷰티 등 메이저 오프라인 채널과 협의 중인 브랜드도 늘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니스프리가 영국을 중심으로, 에스트라는 전년도 9월 영국 이후 유럽 진출 국가를 17개로 늘렸다.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히트한 라네즈(립 제품)와 에스트라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니스프리 원브랜드숍 철수 영향을 극복하고 에스트라와 라네즈가 힘을 받고 있다.

### 중장기 성장 여력과 가시성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아모레퍼시픽은 긴 시간 해외 지역 진출의 다양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과 브랜드, 카테고리 특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영업/마케팅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씨실과 날실을 교차하며 촘촘한 직물을 만들어내듯 점차 글로벌 전략에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진출 브랜드는 많아지고 있고, 브랜드/카테고리별로 마케팅 전략은 정교해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브랜드는 다각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 지역 공통으로 브랜드는 라네즈부터, 채널은 세포라부터 순차적으로 진입하는게 원칙이었다면, 지금은 지역/채널마다 다 다르다. 이니스프리/마몽드는 트렌디하게, 에스트라는 더마 브랜드로

좀더 길고 넓게 보고 있다. 신규 카테고리도 브랜드별로 중첩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를 두었다. 이에 따라 예전보다 과도한 투자가 줄었고, 투자 회수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신규 지역/채널 진출과 마케팅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단일 브랜드/소수 카테고리의 인디 브랜드 기업보다 속도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규모와 중장기 성장 여력 및 가시성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아모레퍼시픽은 서서히 국내 최대 멀티브랜드 화장품 기업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12MF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14.2배에 불과하다.

2026년 06월 2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 BUY (유지)

목표주가(12M) 510,000원  
현재주가(6.26) 363,000원

### Key Data

KOSPI 지수 (pt)	8,411.21
52주 최고/최저(원)	459,000/137,800
시가총액(십억원)	13,590.1
시가총액비중(%)	0.20
발행주식수(천주)	37,438.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16.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5.8
외국인지분율(%)	37.69
주요주주 지분율(%)	
감봉훈 외 5인	34.82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MPANY LLC 외 34인	5.01

###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720.3	3,575.5
영업이익(십억원)	687.1	916.9
순이익(십억원)	536.8	713.4
EPS(원)	14,347	19,056
BPS(원)	21,952	35,116

### Stock Price



###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22.8	1,527.3	2,586.4	3,248.9
영업이익	122.7	365.5	631.1	802.5
세전이익	133.3	364.3	635.3	809.9
순이익	107.6	289.7	482.8	615.5
EPS	2,842	7,704	12,897	16,442
증감율	26.37	171.08	67.41	27.49
PER	17.59	29.98	28.15	22.08
PBR	4.97	19.40	15.58	11.43
EV/EBITDA	13.09	21.40	21.74	16.96
ROE	41.34	75.30	73.25	59.73
BPS	10,058	11,910	23,305	31,746
DPS	0	5,090	8,000	10,40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 에이피알 (278470)

## 유럽 사업 영토 확장 중

### 2분기 영업이익 1,766억원(YoY 109%) 추정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2%, 109% 성장한 6,951억원과 1,766억원 규모가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매출 규모는 타겟/월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확대와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효과가 겹치면서 3,030억원(YoY 215%)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프라임데이에 10개 제품을 뷰티 톱 100에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유럽 매출도 QoQ 50% 이상 늘어난 600억원으로 예상된다. 1분기 영국을 시작으로 2분기에는 스페인과 독일/프랑스/이태리까지 영업을 본격화했다. 품목별로는 제로모공패트 공급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외 콜라겐젤리크림/PDRN앰플/콜라겐레핑마스크는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으며, 신제품 가운데서는 PDRN멀티밤/비타씨캡슐크림/클렌저/PDRN 아이세럼 등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25% 이상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운반비 증가(특히, 유럽항 항공운송), 프라임데이 마케팅비 및 틱톡샵 DFYD(deals for your days) 프로모션 수수료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로 인한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신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

부스터프로X2를 미국에 6월 말 론칭하면서 하반기 마케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6월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화장품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디바이스는 블랙프라임데이를 목표로 마케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 사업(EBD/스킨부스터)은 예정대로 현재 EBD 인허가 진행 중이며, 10명으로 영업조직을 구성하고 인허가 끝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가장 큰 사업 규모에도 가장 높은 외형 성장률

에이피알은 화장품 시장규모가 큰 권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지역이 유럽이었고, 이어서 중국과 중남미로 사업 권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이피알은 전년도 높은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2026년 연간 매출은 YoY 84% 성장한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인디브랜드 가운데 가장 큰 사업 규모에도 가장 높은 외형 성장률 보이는 놀라운 확장세에 있다. 이는 세계 최고의 한국 화장품 산업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피알은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제품을 누구보다 우수하고 빠르게 생산/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세계 최고의 한국 화장품 ODM 인프라 덕분이다. 아울러, 글로벌 신규 수요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진입하는데, 이는 국내 최대 화장품 무역벤더 실리콘투와 긴밀한 협업 때

문이다. 2026년 하반기 실리콘투는 멕시코 법인을 본격 가동할 계획인데, 에이피알의 중남미 진출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후방 산업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글로벌 최고의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 에이피알의 진정한 성장 동력이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이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21.6배로, 2025년~28년 CAGR EPS 45%의 고신장을 감안하면 여유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다.

2026년 6월 30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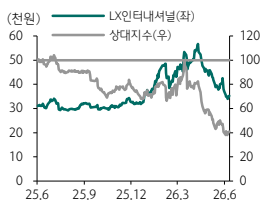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66,000원**  
 현재주가(6.29) **35,35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394.65
52주 최고/최저(원)	56,700/29,150
시가총액(십억원)	1,370.2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38,76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26.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2
외국인지분율(%)	27.54
주요주주 지분율(%)	
엘엑스홀딩스	27.83
인화자산운용 외 2인	7.8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847.2	18,144.7
영업이익(십억원)	452.5	452.4
순이익(십억원)	336.1	341.7
EPS(원)	7,626	7,774
BPS(원)	82,044	88,114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6,637.6	16,706.3	18,436.3	18,353.5
영업이익	489.2	292.2	521.1	465.9
세전이익	460.4	202.8	506.0	414.5
순이익	175.7	141.8	321.1	279.8
EPS	4,533	3,659	8,286	7,219
증감율	50.05	(19.28)	126.46	(12.88)
PER	5.97	8.88	4.27	4.90
PBR	0.39	0.45	0.43	0.41
EV/EBITDA	3.84	5.19	3.78	3.75
ROE	7.12	5.22	10.91	8.74
BPS	69,684	72,567	81,445	85,880
DPS	2,000	2,000	3,000	2,5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LX인터내셔널 (001120)****2분기부터 세 자리 수 이익 성장 시작****목표주가 66,000원, 투자 의견 매수 유지**

LX인터내셔널 목표주가 66,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후에도 주요 실적 관련 지표는 우호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자원 부문 실적 우려 요인이었던 유류비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팜과 니켈 모두 견조한 마진이 기대된다. 트레이딩/신성장은 자회사 적자폭 감소와 석탄 트레이딩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물류는 운임의 실적 반영 시차를 감안하면 2분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유의미한 성장이 예상된다. 2026년 기준 PER 4.3배, PBR 0.4배다.

**2Q26 영업이익 1,199억원(YoY +118.0%) 컨센서스 부합 전망**

1분기 매출액은 4.4조원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할 전망이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강세로 자원과 트레이딩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컨테이너선 해운 시황 강세로 물류 부문도 외형 확대가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1,199억원으로 전년대비 118.0% 증가할 전망이다. 자원 부문은 2025년 2분기 폐석처리비용 기저효과에 더해 팜과 니켈 중심의 증익이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지표인 IC4가 전년대비 36.6% 개선되었지만 유류비 상승에 의한 OPEX 부담 확대로 유연탄 부문 개선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팜은 전분기대비 판매량이 소폭 감소하지만 1분기 고시황 물량의 일부 판매 이연에 수익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니켈도 물량 감소를 가격 상승으로 만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원자재 수출 통제 정책은 향후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한 우려 요소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트레이딩/신성장은 직전 분기 메탄올 시황 강세의 기저효과를 석탄 시황 개선에 따른 트레이딩 수익 증가로 극복할 전망이다. 자회사 LX글라스는 적자폭 추가 감소가 예상되며 포승그린파워는 계획정비 비용 반영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익성이 기대된다. 물류는 CL 기여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운임 상승에 의한 마진 개선이 확인될 전망이다. 2분기에 운임이 빠르게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실적 상향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저평가된 고배당주. 하반기 신규 자원 투자 계획 가시화 기대**

2022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모습이나 실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조정당기순이익이 배당의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여지가 존재하나 지배순이익 개선 여력을 감안하면 2026년 실적 기반 DPS 상향 가능성은 충분하다.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사업 신규 진출, 추가 광산 인수를 통한 기존 니켈 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하반기 중 투자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실적 눈높이 상향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6년 6월 30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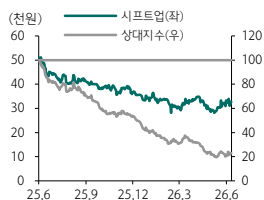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45,000원  
현재주가(6.29) 32,8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394.65
52주 최고/최저(원)	48,900/28,200
시가총액(십억원)	1,923.9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58,654.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09.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5
외국인지분율(%)	36.82
주요주주 지분율(%)	
김명태 외 8 인	42.46
ACEVILLE PTE. LTD.	34.6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03.6	231.7
영업이익(십억원)	101.5	122.9
순이익(십억원)	130.9	150.8
EPS(원)	2,306	2,303
BPS(원)	18,448	20,86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24.1	294.5	224.1	246.1
영업이익	152.7	181.4	121.7	131.4
세전이익	178.8	233.0	144.9	157.1
순이익	148.0	191.4	119.0	129.1
EPS	2,717	3,261	2,026	2,200
증감율	N/A	20.02	(37.87)	8.59
PER	23.33	10.89	15.30	14.09
PBR	4.84	2.16	1.67	1.49
EV/EBITDA	19.48	8.33	9.03	7.61
ROE	19.36	22.71	12.13	11.68
BPS	13,104	16,471	18,586	20,787
DPS	0	0	0	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시프트업 (462870)****니케의 반등 확인, 하반기 스피릿 공개 기대****2Q26 Pre: 컨센서스 상회 전망**

시프트업은 2분기 영업수익 577억원(-48.7%YoY, +22.0%QoQ), 영업이익 331억원(-51.5%YoY, +53.8%QoQ, OPM 57.3%)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2분기 [승리의 여신: 니케] 매출은 457억원(+1.3%YoY, +39.8%QoQ)으로 추정한다. 4월 3.5주년 업데이트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 유지 중이다. 2분기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은 102억원(-84.5%YoY, -20.9%QoQ)로 추정한다. 출시 2주년이 지났음에도 안정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하반기 스위치2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유저 확보는 곧 후속작에 대한 소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스테디 셀러. 스텔라 블레이드 후속작 정보 공개 완료**

2026년 영업수익 2,241억원(-23.8%YoY), 영업이익 1,217억원(-32.8%YoY, OPM 54.3%)을 기록할 전망이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1,667억원(-0.1%YoY), [스텔라블레이드]는 458억원(-60.5%YoY)으로 추정한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3.5주년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출시 이후 다수의 서브컬처 장르 경쟁작들이 출시되었으나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2025년과 2026년 중국 개발사들의 서브컬처 대작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지만 기대 대비 낮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승리의 여신: 니케]와 같이 이미 유저들을 확보하고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오히려 경쟁력을 보이는 게임들의 가치가 돋보이는 시점이다. 시프트업은 6월 SGF에서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의 트레일러를 최초 공개했다. 2024년 출시한 [스텔라 블레이드]의 정식 후속작이며 안정적으로 개발, 출시된다면 출시 초기 500만장 이상의 판매를 기대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5,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5,000원을 유지한다.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글로벌 메가 IP 2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올해 [프로젝트 스피릿]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스피릿]은 텐센트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동시 출시가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게임 시장의 전반의 둔화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시프트업과 같이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게임사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프로젝트 스피릿]에 대한 정보 공개, [승리의 여신: 니케]의 성장, 이후 신작 출시 사이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 6월 30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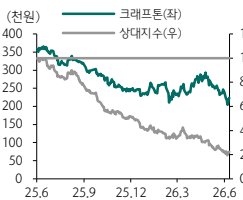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460,000원**  
 현재주가(6.29) **223,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394.65
52주 최고/최저(원)	365,500/204,000
시가총액(십억원)	10,311.8
시가총액비중(%)	0.15
발행주식수(천주)	46,137.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8.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0.9
외국인지분율(%)	43.64
주요주주 지분율(%)	
장영외 30인	22.44
MACE FRAME INVESTMENT(HK) LIMITED	14.4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764.8	5,142.2
영업이익(십억원)	1,436.6	1,595.5
순이익(십억원)	1,141.7	1,256.9
EPS(원)	24,380	27,028
BPS(원)	185,040	210,182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709.8	3,326.6	4,983.9	5,403.1
영업이익	1,182.5	1,054.4	1,473.8	1,634.1
세전이익	1,722.7	959.0	1,448.7	1,873.2
순이익	1,306.1	734.8	1,040.8	1,350.5
EPS	27,162	15,438	22,362	29,271
증감률	122.26	(43.16)	44.85	30.90
PER	11.51	15.93	9.12	6.97
PBR	2.17	1.57	1.12	0.97
EV/EBITDA	8.79	7.62	3.81	2.77
ROE	21.10	10.60	13.98	15.94
BPS	144,190	156,646	182,663	209,824
DPS	0	2,240	2,240	2,24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크래프톤 (259960)****매력적인 가격대, 매수 기회****2Q26 Pre: 컨센서스 대폭 상회**

크래프톤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2,927억원(+95.3%YoY, -5.7%QoQ), 영업이익 4,337억원(+76.2%YoY, -22.8%QoQ, OPM 33.6%)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전망이다. 2분기 PC 매출액은 4,560억원(+107.6%YoY, +25.3%QoQ)으로 추정한다. [PUBG PC]의 성장과 [서브노티카2]의 초기 성과가 반영된 영향이다. [PUBG PC]의 스팀 기준 2분기 평균 접속자 수는 35만명(+13.6%YoY, +19.7%QoQ)으로 전년, 전분기 대비 모두 높은 상승을 실현했다. 높은 트래픽을 기반으로 수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분기 모바일 매출액은 5,122억원(+19.8%YoY, -27.1%QoQ)으로 추정한다. 이미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PUBG M]의 X-suit가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이 확인됐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언노운월즈 관련 비용을 선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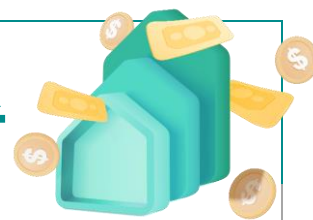
**PUBG의 플랫폼화 진행. 게임스컴 5중 출품**

2026년 연결 기준 매출액 4조 9,839억원(+49.8%YoY), 영업이익 1조 4,738억원(+39.8%YoY, OPM 29.6%)으로 전망한다. PUBG IP의 플랫폼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모바일은 이미 단순 배틀로얄 게임이 아닌 UGC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PUBG PC]의 하반기 추가 웰메이드 모드, UGC 모드의 출시도 예정되어 있다. 5월 출시한 [서브노티카2]는 2분기 누적 500만장 판매를 예상한다. 올해 실적은 이미 상반기 영업이익 약 1조원으로 연초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남은 것은 신작이다. 크래프톤은 8월 게임스컴에서 [NO LAW], [프로젝트 제타], [에이지 트윈스터], [타래: 언바운드]와 PUBG 스튜디오 미공개 신작까지 총 5개의 신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신작 출시 사이클까지 기대할 수 있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60,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60,000원, 게임 섹터 Top Pick 유지한다. 크래프톤은 12MF P/E 기준 8.7배 에서 거래 중이다. 게임 섹터에 대한 소외, PUBG 단일 IP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PUBG는 출시 9주년에 접어들며 보수적인 시선을 받고 있지만 매년 트래픽과 매출 모두 동반 성장하며 증명하고 있다. PUBG의 플랫폼화는 단순히 PLC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신작을 출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PUBG의 성장에 더해 신작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업 가치는 너무나 낮은 상황이다.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낮기에 사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구조적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주가가 상승하여 기업 본연의 가치와 시장 평가의 괴리는 축소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모두가 잊고 있을 때가 가장 큰 기회인 경우가 많다. 현재 크래프톤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올려주는 건설주



건설 Weekly | 2026.6.3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 주간 동향 및 이슈

###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7.6%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기관은 삼성물산을 매수한 반면, 외인은 삼성물산을 매도, 이외 전반적인 건설주를 매수했다.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건설주는 그 이상으로 하락했다.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보합으로 마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DL이앤씨의 사우디 과세 부과 이슈로 크게 하락했으며, 이러한 심리가 전반적인 해외EPC 관련 종목으로 번지면서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이었다. 호남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금호건설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소식에 크게 상승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8.5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0.2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43주 연속 상승(+0.10%), 전세가는 54주 연속 상승했다(+0.12%). 수도권 매매가는 69주 연속 상승(+0.20%), 전세가는 70주 연속 상승했다(+0.21%). 서울 매매가는 74주 연속 상승(+0.30%), 전세가는 71주 연속 상승(+0.36%)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가는 하락(-0.02%), 기타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47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43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4%,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9%), 인천(+0.04%) 상승, 대전 보합, 부산(-0.02%), 대구(-0.04%), 광주(-0.06%)가 하락했다.
-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원(뺑 4기),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에 81조원, 2035년까지 AI데이터센터에 1,000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SK그룹은 총 15GW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1단계 5GW(0.5~1GW 단위 분산 설치), 2단계 10GW 규모로 순차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GS는 동해 2.4GW, 네이버는 세종 등에 1GW를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2028년 상반기 내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그룹은 HBM뺑은 충청권에, 로봇은 경북 구미에, 배터리는 경남 울산에, 패키지 기판은 부산에, 바이오는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한다. 관련 투자는 삼성물산, 삼성E&A, SK에코플랜트 등의 계열사뿐 아니라 한양이엔지, 한미글로벌,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HL D&I, 동부건설 등에 수혜가 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레퍼런스가 있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주변 부동산 개발 수혜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 이란과 미국간 종전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주말 사이에 이란의 선박 타격, 미국의 이란 공습, 이란의 미사일 발사 등이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 상호간 공격 중단을 합의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에서의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종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는 중동 인프라 협력 TF를 구성하여, 중동 주요국들의 단순 피해 복구를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을 위한 발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중심으로 플랜트/토목/건축 등 TF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동 피해국의 인프라 복구 공사 수주 및 이란 시장 재진출을 위한 장기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종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매수해야 하는 시점은 아니라 판단한다. 종전이 확실히 된 후 매수해도 늦지 않다.
- 이번 주 아이에스동서의 투자포인트인 경산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6/29 특별공급, 6/30 1순위 청약 접수다. 26일에 개장한 모델하우스가 3일간 2.7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지역에서의 관심은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약 결과에 따라 아이에스동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반도체 투자, 데이터센터, 종전 3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섹터 내 존재한다.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는 삼성물산과 삼성E&A를, 데이터센터는 GS건설을, 종전으로 DL이앤씨와 삼성E&A를 추천한다.

2026년 06월 30일 | Global Equity

# 일본제철(5401.JP)

## 무난한 영업실적 지속, US스틸 정상화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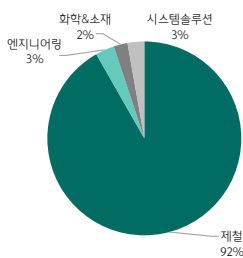
### 일본

TP(컨센서스) 644.9 JPY  
CP(06/29) 546.1 JPY

#### Key Data

국가	JAPAN
상장거래소	Tokyo
산업 분류	소재
주요 영업	금속 & 재량
홈페이지	www.nipponsteel.com
시가총액(십억JPY)	2,934.5
시가총액(조원)	28.0
52주최고/최저()	699.8/531.1
주요주주 지분율(%)	
GOVT PENSION INVST FUND JAPAN	7.31
JP모간 체이스	5.2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6) (14.4) (0.3)
상대	(5.2) (30.2) (39.8)

#### 매출구성



#### Financial Data

(백만 JPY)

투자지표	FY2024	FY2025	FY2026F	FY2027F
매출	8,695,526	10,063,216	10,926,051	11,699,009
영업이익	683,237	650,400	630,957	728,830
순이익	549,372	350,227	304,771	391,678
EPS(JPY)	118.0	89.7	60.3	72.3
EPS(YOY, %)	(15.8)	(24.0)	(32.8)	20.0
ROE(%)	12.3	6.9	6.6	7.0
PER(배)	9.1	9.1	9.1	7.6
PBR(배)	0.6	0.6	0.5	0.5
배당률(%)	5.8	5.0	4.5	4.6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 일회성 비용으로 철강 부문 수익성 악화되었지만 기타 사업부 실적 호조

1분기 일본제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8,069억엔 (YoY +31.0%, QoQ +7.1%) 와 2,943억엔(YoY +151.3%, QoQ +128.8%)를 기록했다. 조강생산량은 1,387만톤(YoY +39.5%, QoQ +1.4%)을 달성했으나, 이는 US스틸 생산 실적 반영에 따른 결과로 실제 유기적 생산 증가폭은 제한적이었다. 철강부문의 매출은 2조 5,468억엔(YoY +34.1%, QoQ +5.9%)이었으나 영업이익은 444억엔(YoY -56.0%, QoQ -60.5%)으로 부진했다. 톤당 ASP는 14.3만엔(YoY +2.7%, QoQ +3.4%)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무로란 (Muroran) 제철소 사고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과 조업 차질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건설 부문의 EPC 사업의 호조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가 비철강 부문의 실적 개선을 견인하며 전사 영업이익 회복을 뒷받침했다.

### 2분기 에너지 비용 확대로 철강 가격 상승 효과 제한될 것

올해 1분기부터 일본 철강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일본내 주요 철강사들이 2분기에도 추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상황으로 일본제철의 2분기 ASP 역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US 스틸의 경우 전분기 발생한 폭발 사고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고 미국내 견조한 철강 수요 지속으로 수익성이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에너지 및 물류 비용이 가중되면서 2분기에만 500억엔 수준의 비용 확대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상쇄되어, 전반적으로 1분기와 유사한 영업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참고로 일본제철은 FY2026 상반기(CY 2026년 2/3분기) 영업이익(재고평가손익제외) 가이던스를 3,000억엔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FY2025 하반기(CY 2025년 4분기/2026년 1분기)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 US스틸 정상화와 신흥국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 긍정적

당초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후 FY2025에 BEP 수준의 실적을 예상했으나 시설 보수 및 사고 발생 등의 예상치 못한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56억엔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US스틸은 2026년 1월부터 Big River 2 공장이 상업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무방향성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믹스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집중된 US스틸의 노후 시설 보수 및 전략적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고정비 절감 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타이트한 철강 공급 환경과 제품 가격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일본제철은 US스틸에서만 FY2026에 1,000억엔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아르셀로미탈과의 합작사인 AM/NS India가 지난 3월 인도 Andhra Pradesh주에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을 착공했고 2031년부터 연간 700만톤 조강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으로 신흥국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일회성 비용으로 철강 부문 수익성 악화되었지만 기타 사업부 실적 호조**

1Q26 영업이익 2,943억엔(YoY  
+151.3%, QoQ +128.8%)

기록

1분기 일본제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8,069억엔 (YoY +31.0%, QoQ +7.1%) 와 2,943억엔(YoY +151.3%, QoQ +128.8%)를 기록했다. 조강생산량은 1,387만톤(YoY +39.5%, QoQ +1.4%)을 달성했으나, 이는 US스틸 생산 실적 반영에 따른 결과로 실제 유기적 생산 증가폭은 제한적이었다. 철강부문의 매출은 2조 5,468억엔(YoY +34.1%, QoQ +5.9%)이었으나 영업이익은 444억엔(YoY -56.0%, QoQ -60.5%)으로 부진했다. 톤당 ASP는 14.3만엔(YoY +2.7%, QoQ +3.4%)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무로란(Muroran) 제철소 사고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과 조업 차질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건설 부문의 EPC 사업의 호조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가 비철강 부문의 실적 개선을 견인하며 전사 영업이익 회복을 뒷받침했다.

#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29	339,500	323,000	-4.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li> <li>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li> </ul>
SK하이닉스 (000660.KS)	6/29	2,673,000	2,628,000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li> <li>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li> </ul>
KB금융 (105560.KS)	6/29	149,300	153,700	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li> <li>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에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li> </ul>
한화오션 (042660.KS)	6/29	98,000	105,500	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가 수주물량 해소와 고가 선박 매출 인식 본격화로 상선 부문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li> <li>캐나다 CPSP-국내 KDDX 등 특수선 수주와 해양플랜트 발주 확대 기대감</li> </ul>
삼양식품 (003230.KS)	6/29	1,111,000	1,160,000	4.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li> <li>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li> </ul>
대덕전자 (353200.KS)	6/29	133,200	132,100	-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서버용 MLB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li> <li>FC-BGA 가동률 회복과 자율주행·시향 신규 수요 진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li> </ul>
세방전지 (004490.KS)	6/29	49,250	53,500	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회사 세방리튬배터리를 통한 북미 전력망용 ESS 모듈/팩 사업 진출</li> <li>P/E 6배 수준의 저평가와 현재 주가 기준 4% 후반의 배당수익률 매력 부각</li> </ul>
리가켄바이오 (141080.KQ)	6/29	142,900	162,9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li> <li>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li> </ul>
파마리서치 (214450.KQ)	6/29	324,000	349,000	7.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세프라-중국 오프라인 채널 확대, 유럽-중동 의료기기 진출로 성장 모멘텀 부각</li> <li>리뷰란 브랜드 가치 기반으로 내수 의료기기 수요 견조</li> </ul>
코스메카코리아 (241710.KQ)	6/29	66,100	71,100	7.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사 성장 지속으로 화장품 ODM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대</li> <li>잉글우드랩 지분을 확대에 따른 연결·지배순이익 개선 효과로 실적 가시성 부각</li> </ul>

##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55%	+4.75%p	+78.78%	+2.0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효성중공업 (298040.KS)	6/29	3,103,000	3,274,000	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li> <li>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li> </ul>
삼양식품 (003230.KS)	6/29	1,111,000	1,160,000	4.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li> <li>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li> </ul>
한국콜마 (161890.KS)	6/29	90,700	99,400	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분업 성장성 강화</li> <li>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li> </ul>
리가켄바이오 (141080.KQ)	6/29	142,900	162,9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li> <li>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li> </ul>
삼성생명 (032830.KS)	6/22	385,500	408,500	5.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li> <li>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li> </ul>
신세계 (004170.KS)	6/22	695,000	729,000	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li> <li>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테리어서날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li> </ul>
삼성전기 (009220.KS)	5/26	1,340,000	2,038,000	5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li> <li>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li> </ul>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628,000	155.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li> <li>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li> </ul>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23,000	9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li> <li>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li> </ul>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915,000	21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li> <li>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을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li> </ul>

##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2.42%	-22.70%p	+55.83%	-20.9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6,055	8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li> <li>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li> </ul>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065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li> <li>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li> </ul>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3,920	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li> <li>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li> </ul>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580	3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li> <li>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li> </ul>

##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11.61	8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li> <li>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li> </ul>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71.88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li> <li>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li> </ul>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29.6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li> <li>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li> </ul>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6.85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amp;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li> <li>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li> </ul>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28	6.29	6.30	7.1	7.2	7.3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5월 광공업생산 (E 3.6%, 이전치 1.5%)</li> <li>중국 6월 제조업 PMI (E 50.1, 이전치 50)</li> <li>중국 6월 서비스업 PMI (E 49.9, 이전치 50.1)</li> <li>일본 5월 실업률 (E 2.5%, 이전치 2.5%)</li> <li>미국 6월 CB 소비자기대 (E 94.4, 이전치 9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6월 수출 (E 60.9%, 이전치 53.2%)</li> <li>한국 6월 수입 (E 24.5%, 이전치 20.8%)</li> <li>중국 6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52, 이전치 51.8)</li> <li>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E 53.9, 이전치 54.0)</li> <li>유로권 6월 CPI (E 3.0%, 이전치 3.2%)</li> <li>유로권 6월 근원 CPI (E 2.5%, 이전치 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6월 CPI (E 3.2%, 이전치 3.1%)</li> <li>미국 6월 실업률 (E 4.3%, 이전치 4.3%)</li> <li>유로권 5월 실업률 (E 6.3%, 이전치 6.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6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53.1, 이전치 54.4)</li> </ul>	
7.5	7.6	7.7	7.7	7.8	7.9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 이전치 51.3)</li> <li>유로권 5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1.0%)</li> <li>유로권 5월 PPI (E --, 이전치 4.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5월 수출 (E --, 이전치 2.6%)</li> <li>미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5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1)</li> <li>일본 5월 동행지수 (E --, 이전치 118.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6월 PPI (E --, 이전치 3.9%)</li> <li>중국 6월 CPI (E --, 이전치 1.2%)</li> <li>일본 6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5%)</li> <li>미국 6월 기준주택매매 (E --, 이전치 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6월 PPI (E --, 이전치 6.3%)</li> </ul>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